도시의 종교개혁

와타나베 노부오
(동경고백교회 담임목사, 전 아시아칼빈학회장)
번역: 임미향

나는 16세기 종교개혁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주께 받은 직무가 말씀을 통한 선교였고,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한 배움의 방편으로 "칼빈신학" 혹은 "칼빈이 추구했던 목표를 추구하는 배움"에 집중했다. 자칫 이것이 배움의 영역을 극히 좁은 틀 속에 한정시키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는 수 없다고 여겼다.

학문으로는 좁은 문으로 가기로 했지만, 시대를 살아내는 기독교인으로서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었다. 내게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험이 있다. 이미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경험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정확히 70년 전 가을, 일본에서는 '학도출진(学徒出陣)'이라 불리는 사건이 있었다.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군인으로 입대하여 전선으로 나가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의 대학생 여러분들이 볼 때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고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르겠다. 그게 옳은 판단일 수도 있겠으나 일본에서는 일대 사건이었다. 나도 학도병 소동에 휘말렸던 당사자였다. 소동이라 표현했지만, 실제 소동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 아주 침착하게 조용히 입대했다. 이미 기독교인이었던 나로서는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에 비기독교인 학생들보다 훨씬 평정을 유지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이 유지되었던 건 아니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생각을 정지시킨 국가의 명령에 무조건적이고 노예적인 복종이었을 뿐이었다. 모든 생각을 던져버렸기에 걱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해군에 입대하여 사관으로, '해방함'이라는 750톤의 소함정에 근무하면서 오키나와 근처의 작전에 종사했다. 당연히 여러 번 위험에 처했고 많은 주검을 보았지만, 결국 살아서 패전을 맞았다. 부상도 당하지 않고 살아 돌아온 나는 "살아서 다행이다!" 라고 기뻐하는 대신에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행했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느꼈다. 더욱이 동년배들의 비참한 죽음을 수 없이 지켜보았기에, 살아 남은자로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남은 생명을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리라 마음에 다짐했다.

그 후의 68년간, 나는 삶의 자세를 180도 바꾸어 살아왔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패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걸어온 길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였고, 고분고분 국가의 명령을 좇은 자신의 삶과 일본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당연히 전쟁 전 만이 아니라 전후의 일본의 행보에도 대부분 비판적이 되었다. 그리고 내 나라의 잘못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넓은 시야를 확보하면서 신학의 좁은 길을 걷기로 했다. 폭넓은 시야를 지니는 것과 학문의 좁은 길은 상호모순 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로운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신학 연구에 있어서, 나는 칼빈이 견지했던'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함','정해진 것을 지키는 엄격함','사고의 엄밀함'을 배우기 원했다. 그러나 그 엄격함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야를 넓혀 단면적인 관점에 묶이지 않고, 다방면의 관련성을 놓치지 않도록 세상을 고찰해 왔다. 그렇다고 해서 이리 저리 손을 뻗어 본바탕이 되는 배움에 산만해졌는가하면, 오히려 시야를 넓히는 것이 신학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했다. 지금부터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인간정신의 소유자에 의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고와 더불어 논쟁할 마음은 없다. 마틴 루터가 위대했으며, 칼빈 역시 위대했다. 그러나 그 위대함을 논하는 것만으로는, 그 위대함 속에 잠기는 만족감은 있을지언정 학문의 축적으로 열매를 맺는 건 아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철저히 파악하여,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규명하고 싶었다. 칼빈 당시의 학문적 환경은 어떠했으며, 그 환경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가 있었던 장소가 '도시교회' 였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은 본래 교회가 존재할 장소가 도시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종교개혁 교회가 출발 당초에 도시에 있었으며, 도시에서 초기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은 적절했다는 의미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루터를 중심으로 한 영웅상 내지 군상으로 묘사하는 일이 비근하다. 나 자신도 그런 인물을 묘사해보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들의 작업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객관적인 종교개혁상은 그것과는 별개의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교개혁의 이해가, 이전에는 인물상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사회학적 견지에서 살펴보려는 새로운 경향에 눈뜨게 되었다. 도시종교개혁에 주안점을 두는 역사연구에는 동의할만한 점이 많았지만, 신학을 연구하는 입장인 나로서는, 사회학적인 관점 속에 녹아져버리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학적 관점이 아니라, 신학적 관점으로 사회를 보는 것이다.

본인은 특히 초점을 칼빈에 맞추어 고찰해왔지만, 그 초점 속에 다른 중요한 핵심이 매몰되어 버린다면, 칼빈이 늘 상 생각해왔던 목표, 즉 교회의 본질은 사라지는 것이다. 교회 속에서 칼빈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섬기는 종이었다는 점을 붙잡을 때 비로소 칼빈의 모습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이다. 제네바라는 도시가 단순히 칼빈이 활약하던 무대배경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제네바라는 도시를 다시 살펴보면, 또 다른 이해가 보인다. 좀 비약되는 이야기 같지만, 후대에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 도시를 버리고 떠났던 사상가 루소를 칼빈과 연관시켜 많은 사람이 거론하곤 한다. 그들은 칼빈을 역겨운 존재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법학계의 거인이라 할 오트기르케는 루소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도, 루소의 사상의 핵심인 '계약'원리의 대부분이 그가 나고 자란 고향 제네바에서 배양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루소에 관해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논할 필요는 없겠지만, '계약'이라는 키워드는 구약성서 속에 그 연원이 있다. 그 연원을 소중히 지켜온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열쇠를 사용하여 사회의 골격에 걸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칼빈과 제네바의 관련성은 루소의 경우와 전혀 다르지만, 그 관련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깊이 읽어낸다면 칼빈의 깊이가 보이는 것이다.

종교개혁 전, 혹은 종교개혁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기 직전, 독일 남부지역을 비롯하여 스위스의 독일어 사용권 몇 도시에서, 그 지역의 목사들이 모여 성경구절을 놓고 토론을 거듭한 끝에 테제(These, 정립)을 발표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이러한 테제의 수집은 어느 정도 진척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비슷한 사건을 망라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시대의 일반적 현상이었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도시에서는 지적 자극도 많았고, 종교적인 관심 역시 적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가까운 목사들의 회합이 잦아졌다. 이들이 만든 그룹별로 단순일색으로 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개성을 지니면서도 일련의 공통성을 지닌 유연한 결합체를 만들어 갔다. 이는 '루터파'와는 별개인 '개혁파(Reformed)'로 불리는 그룹으로 결성되어 갔다.

방금 독일 남부지역을 거론했는데, 독일 북부지역에는 도시가 적다. 영토가 넓은 농촌에는 많은 연방을 지배하는 제후가 있었고, 그들의 종교는 루터파나 가톨릭이었다. 루터파나 가톨릭이 내세운 주장은 단일했다.

지금부터 개혁주의를 고찰하겠는데, 개혁주의가 내건 종교개혁의 기치는 도시의 독립과 깊은 연관성이 있었다. 여기서 '독립'이란 신성로마제국(독일제국)으로부터의 독립, 혹은 제국을 이루는 왕국으로부터의 자립과 자치를 일컫는다.'신성로마제국'이란 실제적으로 구심력이 매우 약한 이념적 작문의 수준의 '성스러운 제국'이라는 이념을 기치로 내건 표면적인 강경파였을 뿐이다. 이미 기독교적 로마 이전 황제지배의 로마에서도, '영원한 로마'라는 국가 이념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읽을 수 있지만, 이같은 이교도적인 영원성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대로 깨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참된 영원성을 지닌 영원한 도시 로마의 도래를 대망하는 주장은 언제나 있어왔다.'신성로마제국'이라는 호칭은, 영원한 제국이 지상에 세운 영원한 로마교회에서, 어떤 의미에서 현실화된 것이라는 트릭을 연출했다. 이를 로마가톨릭교회는 이용한 것이다.

종교개혁은 그와 같은 환상을 파괴했는데, 교회에 대한 환상을 깨트림과 동시에 '지상의 신성한 제국'이라는 환상도 깨어버렸고, 제국의 '보증서' 없이 국가의 자립 혹은 독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개혁파 종교개혁'과 '도시국가의 자립'은 시기적으로 동시였을 뿐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연관성을 지니는데, 그 이념적 연관성에 대해 정확하게 사고하는 사람이 교회에는 있었으나, 도시 측 정치가 중에서는 당초에 없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무리가 아닌 것은 '교회'와 '국가' 양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의해 보호받는 정합성을 지니고 있지만, 각자가 별개의 질서를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라는 식의 양분법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양자를 결합시키는 작업은 양쪽의 원리에 통달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후대에 이르러 국가와 교회 양쪽을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나지만, 종교개혁시대 초기에는 없었다. 후대에 나타난 사람으로'요하네스 아르트디우스'(1586-1638)를 들 수 있다. 자주 듣던 이름이 아니라 여길지 모르겠다. 크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법학자, 정치학자로

서는 당대의 학자였다. '인민의 주권'이라거나 '더불어 사는 사회'와 같은 이론을 가장 먼저 주창했던 일급 학자였다.

이야기가 약간 곁길로 빠지는 듯하지만, 일본의 헌법학자 중에서 아르트디우스를 가장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 사사가와 노리가츠(笹川紀勝) 라는 사람이다. 어쩌면 한국에서 더 유명할지도 모르지만, 소위 한일 양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일합병'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거듭한 결과, 한일합병이 위법이었다는 내용의 방대한 논문집을 편집한 사람이다. 그의 법학자로서의 식견은 이러한 점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아르트디우스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국가와 교회, 양 영역에 통달한 학자가 개혁파에만 있고 루터파에는 없었다는 판단은 편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해에 도달하기에 개혁파가 유리했으리라 간주할 수는 있다. 그 차이는 개혁파의 국가의 이해는,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하였고 따라서 소규모에 단순하고도 손쉬운 실례에서부터 기초적인 학습을 했다는 점에 있다. 루터파는 처음부터 교회와 연관된 국가가 광역인데다, 이미 완성된 제후의 지배지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자.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도시가 독립한 덕택에 교회도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도시가 주도권을 쥐었다고 보는 정치가가 많았던 것 같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행동에서 볼 수 있듯이 개 교회는 그 지역의 주장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광역 교회가 되면, 그 지역의 정치적 주장의 권한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에 무게를 두는 듯 하다. 예를 들어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황제의 권위에조차 복종하지 않는 선례를 세웠다. 즉 지역교회 대표자는 그 지역의 그리스도의 대리인 역할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이 힘을 얻어왔다. 그러나 그 이론이 반드시 널리 행해졌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파송 받은 자의 권위는, 영적인 권위와 더불어 말씀 속에 존재하는 권위로서 칼이 지닌 권위와는 별개라는 원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나온다. 따라서 중세 교회에서 '두 자루의 칼'이라는 원리가 창안된 것에 반해, 종교개혁은 이를 확실하게 거부했다. 따라서 교회의 대표자가 지닌 권위는 세속의 권위 이상의 것이긴 하지만, 세속적 영역에서 행사되는 권위는 아니다. 예를 들면, 제네바의 시당국이 목사들을 면직 조치했을 때,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 패배하는 선례를 만든 게 아니라, 후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칼빈이 복직한 초기에는 사소한 분쟁이 있었으나, 목사가 가진 권위로, 결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지 않는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그 판단을 존중해 주었다.

제네바뿐 아니라, 당시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여러 도시에서 목사들이 영적 주도성을 침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항상 그랬으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다행히 인간의 과오가 억제되는 섭리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옹호되는 원리는 정당한 것이다. 당시 소도시의 시정에 관한 당사자들의 충분한 경험의 축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점차로 경험의 축척에 의한 도시운영의 숙련이 획득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미숙한 단계라 할지라도, 도시는 촌락과 달리, 단순한 생산과 소비를 영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다면적으로 학습해가야만 하는 기구였다. 즉 하나의 가족단위의 생계를 고려하면 족한 상황이 아니라, 밀집되어 삶을 영위해 가는 도시사회에 필요한 재정과 치안, 방재, 위생, 도시로서의 품위와 미관, 문화의 육성과 교류, 등 광의의 문화에도 신경을 써야만 한다. 그리고 도시 속에 존재하는 교회

역시 도시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지체들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법과, 역사 속에서의 교회의 존재방법을 배워간다.

종교개혁과 더불어 생육되어온 도시는 모두 소도시였고, 이는 후시대에 그 심각한 문제성을 드러내는 거대도시와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야만 한다. 소도시라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와 안전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정치적 공동체였기에, 이미 고대사회에서도 단순히 척도의 크기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었다.

종교개혁기에 자립을 달성한 도시는, 종교개혁 교회가 요구하는 요소도 있었지만, 도시 자체로서도 필요한 제요소들을 당연히 정비해 나갔다. 특히 필요한 것은 인간생명이고, 문화적으로는 대학이다. 종교개혁도시는 도시의 규모는 작았지만, 대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대학의 필요에 부응할만한 인재가 없었던 시대였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대학과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인재를 모을 수 있었다. 이들 대학이 부족한 시 재정을 압박할 정도까지 성과를 올렸는가를 묻는다면, 그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평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해악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 시기의 대학은 기본적인 학문을 배웠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도시종교개혁에 의해 세워진 것은 당초 소도시교회의 연합체였고,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네바 교회가 개혁된 교회의 확대를 열망했기 때문에, 1560년 이후, 프랑스,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국가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통일성 있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나 초기와 다른 질적 변화를 이룬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 도시교회로서 구축된 요소가 국가단위의 교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규모의 교회로 전환된 후, 국가의 존재가 교회의 형태를 왜곡시키는 행위가 발생하게 되었다. 소박한 국가주의는 원시적 국가에도 존재했었지만, 자타를 위협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근대국가는 흉악성을 발휘하기가

훨씬 용이해졌고, 함께 공존하는 교회의 존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종교개혁 교회는 그 위험성을 눈치 채지 못했던 듯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이미 자각하고 있다.